

사설

## 수급조절위에 바란다

생약협회가 지난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자 개량용으로 들여와 권장 재배한 지황의 가격이 수입산 지황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물가,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정되어지는 범위내의 다소의 가격 차이는, WTO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의해 설 땅을 잃은 우리의 농촌을 위하여 감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어 날로 생산성을 잃고 급기야 경작을 포기하고 이농하는 등 날로 황폐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쟁력있는 대체작물을 권장하고 우리의 것을 살리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국내산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이익에 얹매어 소비자 단체가 수입을 적극 요청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한약재의 수입은 국내산 한약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 생산 한약재의 소진 후 부족한 물량을 수급위에서 수량 시기등을 감안 적정량을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운용에 있어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상황에 의해 원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사회적인 파장이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한다. 일례로 당귀의 경우 과거 평균적인 가격으로 근당 5 천원을 유지하며 년평균 2천여 톤이 생산, 소비되던 것이 국내의 경기 불황과 대량 소비업체의 수입엑스스 사용등으로 인하여 년평균 1천여톤으로 소비가 줄었고 생산 및 이월 재고의 증가에 의해 가격 또한 근당 2천원대로 하락함에 따라 많은 농가가 한숨과 시름에 잠겨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금년에는 이를 감안하여 당귀의 적정 재배에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정확한 통계 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단위의 생산단체에게 알려서 과잉생산을 피하고,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은 철저한 경제원리에 의해 조정되어 지나, 작금의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 농촌은 우리 먹거리의 생산처이며, 농민은 가장 중요한 생산자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얹혀있는 유관 단체와 그리고 온 국민이 보다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농촌을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 희망찬 생산지로 가꿔 나가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천직으로 삼아 우리의 질좋은 생약재 생산에 전념하시는 생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수급조절위원회의 원만한 조정을 당부 드린다.

## 안동1호 뿌리 매끈, 수확 용이

## 뿌리 곧고 황갈색 영풍백지

영덕식 방풍 다수성, 전국재배 가능

지, 식방통 등 4종의 약용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소들이 높기 때문에 해마다 재배면적 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된 우량품종이 없어 농가마다 임상한 지방재배종을 무분별하게 섞기 때문에 농사를 망하는 경기가 허다했다. 이에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원장·이수길)은 우리나라 풀토에 알맞고 별종해 등을 재해에 강하고 양질의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만들고자 지난 90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순계분리 육종을 한 결과 짧은마다 1~2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우량식품으로 육성됐다.

◆ **안동1호(산약)**  
재래단마는 뿐만 아니라  
식방통> 내병다수성인  
△영진자약>을 육성하  
는 개가를 올렸다.  
일반 식량작물에서는  
현재 지정된 장려 풀종  
만도벼 56종 볼리 27  
종, 밀 11종 콩 32종  
감자 7종 고구마 10종  
옥수수 9종 유료작물  
32종 등 2종의 풀종이  
있으나 약용작물은 지금  
까지 겨우 맘문통과 작약  
약, 시호에서 각각 1개  
풀종이 지정돼 있을 뿐  
이다.  
도 농지와에 따르면  
이미 우량품종으로 지정  
된 이를 4개 풀종은 올  
해 종묘를 키워 내년부  
터 농가에 복급될 예정  
이다.

◆여전자약 기존 비해 수화량이 19~25% 정도 늘어날 뿐 아니라 절루드망과 휴가부등 병행종에 갈하고 특히 주요 약성분인 파이오니아, 프로린 활성이 높다. 생산량감정시험 결과 일반 단자는 10a에 2천 2백 95kg이 생산된 반면 <안동호>는 3천 30kg으로 32%가 늘어났으며 지역별 용시에서는 2천 9백 55kg 농가 실적 증시현지에서는 2천 7백 96kg으로 각각 12%、32%가 증가했다.

생산력을 점검 시험에서  
 ◀영통백지▶는 10 a당  
 4백 18kg에서 5백 90kg, 농가 실  
 증시험에서 6백 29kg이  
 생산돼 ◀봉화종▶의 3  
 백 45kg에 4백 54kg, 4백  
 30%에 비해 각각 21%,  
 35%가 증후됐다.

성으로 재배면적 확대가 농어물을 겪어왔지만 다수 기대된다. 특히 「영양식 밭물」은 탄자별과 더운 여름에 있어 마른 하고 헛상에 강해 전로적이로 재배가 가능하다.

수량도	생산량/경작면적
현에서 제을시현에서 농가설정에서	4백75kg 1백31kg 1백11kg
종보다 24% 10품 %가 늘어났다.	기준 29kg 11% 10kg



### ◇영덕식방풍 지상부 생육 현황

**슈퍼씨비닐** - 종자 절감에 감탄하고 인력절감에 놀란다



- #### ■ 슬퍼씨비닐 이런점이 좋습니다.

- 수피시미를 더한 음성이 좋습니다.**

  1. 파종, 복도, 비닐멸칭작업을 한번에 할수가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우수한 씨앗만을 엄선하여 필요간격에 따라 정확히 접파할 수 있으므로 밭아율이 뛰어날 뿐더러 귀중한 씨앗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비닐 멸칭으로 인해 밭아와 성장이 빠르므로 단기 수확이 가능하며 품질도 뛰어납니다.
  4. 제초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제초작업이 용이합니다.
  5. 편도경작이 의식하여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완전 보완해  
발아울이 뛰어납니다.

기존 씨비늘

지표면 씨앗부위가 고르지 않으면 발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필요이상의 씨앗을 불이게 되 씨앗 소비는



**개량 된 슈퍼서비스**

씨앗 부착부분을 정밀가공하여 작은 요철에서도 땅에 밀착되므로 발아율이 대폭향상되어 종자소비량이 국소화됨

기타 담귀, 백지, 방풍, 강활, 하수오등 모든 미세약초종자는 슈퍼씨비닐 가공이 가능하며 그 소요량이 대폭 절감됩니다. 자세한 재배방법은 문의바랍니다.

**AI 달農産**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2-4 풍전빌딩 302호  
**TEL: 449-8280 ~ 1**